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經濟」에 대한 토론문

황창한

울산문화재연구원

생계의 사전적 의미는 ‘살아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뜻한다. 즉 청동기시대의 살아가는 방도에 대한 검토는 당시의 생활상 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고고학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접근을 석기를 통해 시도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발표자로부터 많은 지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논고를 읽고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먼저 석기의 기능별 분류 중에서 석촉을 수렵과 무기로 구분하고 있다. 발표자는 석촉을 수렵과 무기의 동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태에 따라서 수렵용과 무기로의 구분에 더 치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렵과 무기라는 기준이 공격대상물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모호한 점이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원거리에서 타격을 가하는 것은 동일하다. 무기의 경우 화재주거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들었지만 형태적인 변화를 수렵과 무기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이다. 오히려 능률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작기법의 변화에 따라 형태적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동시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까.

발표자가 지적하였듯이 석기는 선사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계경제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공감한다. 분석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개별 석기를 용도별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대상유적은 유물이 100점을 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각 유적별로 주거지의 수에 따른 석기의 비율이 없어 각 유적별로 절대적인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로부터 분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유적의 입지 분류에 있어서 구릉과 충적지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고 거의 동일한 조

성비가 나타나는 것은 발표자의 견해대로 환경차이를 뛰어넘는 공통성을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유적의 입지와 더불어 생계경제와 밀접한 식생에 따른 지역권을 설정한 다음 이에 따른 분류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 그림 2의 수렵구를 보면 한반도의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방기리, 굴화리 장검, 대평리 옥방, 대평리 어은 등은 수렵구의 비중이 낮은 반면 이보다 북한계선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렵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온난한 기후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수렵의 비중보다 경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